

『그야 녀편네라고 다그려하겠습닛가 만은 혼인이라 하는 것은 어두운밤에 술
니잡기갓하셔 다행이 셴량흔사람을 얻으면 조치만은 그것을 얻의 미들슈잇
습닛가』

『령감이 그것게말을하면 내가 아조담당하고 열가지에 한가지도 흠절업는
요조숙녀를 천거홀터이니 그러면 엇더하겠나』

『아쥬머니가 그녀즈의 평일행동이며 그리력과 위인을 확실이아시고 장담을
할실지경이면 나는 아쥬머님을밋고 장가가겟습니다』

데십이회

정부인은 정옥조의 전일결심이 비로소울작이여 다시극가흔 규슈만잇스면 성
취홀의스가 돌들보미 그부인의 깃거운마음은 엇다가비홀리오 얼골에 희색을
씩우고 다시말을홀다

『그러하면 또한마디 무려불일이잇네 다른말이안이라 이번엇을식시는 엇더
흔사람으로 하려는가 량반에 문벌도흔집조손을 톨홀터인가 여간식골도반
갓흔 사람의살은 아마 조네성미에 실라고홀뜻하기에 못는말일세』

『그게무슨 말숨이심닛가 이전완고시절갓흐면 문벌이니 가풍이니하고 요란
을피지요만은 지금제상에야 원당조하나보면 그만이지오 나는 문벌에더히
셔는 조곰도 상관하지안습니다 빅정의조식이라도 위인만 섯섯하고 암전히
셔 정가의집 쥬부되기에 붓그림지안이홀만흔 사람이면 그만이지오 나는
도로혀 혁혁홀집 조너라하면 더밋지못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호활흔디 조
라나서 도량방조만하기 쉬우닛가 그싸위인물가지고는 단란한가정은 조지
히불슈업지오』

『하하원아모리기로 그러키야하겠나 너모심하게 하는말이지 그러나 령감
의말은 다올은말일세 문벌을안이불슈도 업지만은 첫지로 당조가합당히야
지내가 지금하겠노라고 말흔사람은 다시 두말홀것도업고 이로충찬은 다
홀슈업네 나는 세상밧게 나온후로 그런식시는 처음보앗셔 빅가지에 한가
지나물알데가 업는사람일세그러』

정옥조는 얼골에 미소를씩우며

『아니별셔 아쥬머니씩셔는 마음속으로는 결정히두신 신부가 잇는게을시
다그려저도 다시장가를 들가하는싱각은 먹엇습니다만은 그것게급작이야
할슈잇습닛가 셔셔도지를하지오』

『글세나도 급작시리 장가가란말이안이라 합당흔혼처가 잇슬썩에 정히두기
는히야지 썩을일으면 그런식시를 다시구하기가 극난홀터이닛간 지금은 정
흔만하여두고 성례는 셔셔이하게하게나』

『아쥬머니가 그닥지쥬시는사람은 더관절 뉘집규슈오닛가』

정부인은 다시 우슴을 먹음으며

『지금니가 말하는 규슈는 비록 식골도반의 쌀이지만은 그 흥동과 위인으로 말하면 서울지방이 흥업있는 집 쌀이라도 좃차가 지못홀터이오 우리정가의 문중에 부인네로도 그만흔이는 니가 밋지 못했어 학문으로 말하드리도 기쁜 학문은 업셔도 너편네로는 면무식이나 됴세음이오 서울셔 녀학교에도 단 여보아서 기명도 흥였스닛가 령감의 마음에도 합당흔 줄로 나는 아네-성품이 데일순량히셔 나는 그 규슈의 어렸슬 때부터 귀히히셔 내 조식 갖치 알고잇는 디 그만치 천뵝가지로 흠절업는 식시는 업는 줄아네 티도와 어엿분얼골은 누가 보던지 칭찬안이 할사름은 업스리』

『앗다 아쥬머니는 입에 침이 업시 चु심니다 그러 사름은 안이고 션녀가 하강흔 것갓치 흥심닛가 도로혀 밋엄죽지가 안습니다』

『웨니가 업는 말을 할리가 잇나 돈바다 먹고 단기는 중미장이도 안인데 손톱만 치라도 업는 말이야 흥겅는가』

『아- 그러실터이지오 나도 실업슨 말슴이올시다 내가 밋는 아쥬머니 말슴이 닳가 범연홀리야 잇겅슴닛가 디 레어디사는 식시란 말슴이오』

『아마 령감도 더러보기도 헛슬겅 말은 만이 드렸슬터이지』
정옥쇼는 고기를 기우리고 생각을 흥며

『그식시의 집이 어딘가요』

『집은 이동리안이지 웨 요전에 령감이 처음여기나려왔슬때에 공쥬일읍사름은 모다 청히다가 잔치히셔 디점흔 일업나 그때 내가 왜 리기장의 쌀 리겅조라고 령감에게 인사붓치지 안이 흥든가 니 말하는 식시가 즉 그식시야』
정옥쇼는 이제야 비로소 생각이 나는지

『네 그식시야요 참 인물도 똑똑하고 위인도 단정히보입디다 나는 그떡 그식시를 보고셔 식골구석에 저런 식시가 다 잇나 흥였지오 그러닛가 아쥬머니가 입디지 칭찬하시든 사름이 그식시오닛가』

『응 그식시는 니가 다 짐이라도 홀터일제 어려서부터 너 조식 갖치 길너셔 성품도 알고 흥동도 알썬안이라 니가 쥬션을히셔 서울로 공부시지식이려 보니 엿섯네 서울셔 공부하다가 나려온지가 벌셔 잇히나 되엿지만은 아즉 출가하 지안이 흥고 잇는디 그어르신네의 말인즉 무남독녀라고 데릴스위를 구하겅 다 흥데만은 말이 그러하지 합당흔스 위감만 잇스면 그러케 할리야잇나』

『저는 너편네에 디히셔 남이 보증흔다 흥는 말을 결단코 밋지안이 합니다만은 아쥬머니 말슴이 닳가 밋고 말슴이올시다 그러나 그식시에 디흔 일은 모다 일동일정을 보증흔 실터이시지오』

『그것은 니가 보증흔 실터이안이라 그식시의 잘못하흔일이 잇스면 그허물은





너가 당할것네 정말 비옥갓흔식시나 다시 두말할지말게 리과장이라 하는
사람도 이식골량반으로는 문벌도잇고 형범잇는 집안이지 예스식골토반으
로는 알사람이안이라네 우리집하고도 동년외하고 지너는더이닛가 그식시
에당할일은 조곰도념려말게

『아쥬머니 말씀과갓흐면저는 저편에서 허락만하면 결혼할것습니다 아쥬머
니 말씀갓치 그런결벽무흠흔 녀즈일것갓흐면제가 도로혀 짐이 묵어울줄
노암니다』

『공연이 그러흔 범스의걱정은 하지말게 그러면 내가 일간그집에가서 귀회
를타서 동흔을하여봄제』

데심숨희

『오날뒤에온것은 다른일이안이라 썩님흔스를 의론하려고 온일이올시다』
하며 정부인은 리과장을 츠즈와서 동흔코저흠이러라 리과장은 그부인을 원
리부터 존경하며 또는 신용하는더이라 공손이디답을하며

『일상이릿케살년의 당할일에 당히서는 마음에두시고 심려를히주시니 너무
도 황감하고 이다 살년의 혼스로하여서 저도 큰걱정중이올시다 나이는점
점먹어가고 맛당할사위감은 썩나서지안이하여서 일상 근심이야요 나스살
이나먹으면 압길이썩나 그러흔지마음이조급하여서 하로밤비성취를식여
주려고하나 다일이 여의치못하고이다그러』

『그러하시겠지요 차차년세가 만아가시닛가 그러하시기쉽지요 그러나 요전
에드르닛가 썩님은 데릴사위를 하시겟다하시드니 정말 그러케할실터인가
요 혼인만히서는 인륜의대사이닛가 그러케 급급히하시지마셔요 너모급히
할면 얹전흔사람을 구하기도어렵고 썩님갓흔규수를 두시고셔야 사위야 너
마음것 잘골나서 어드시시오 아쥬 나이가 그리만습닛가 아모리기로 이세
상에 상당흔사위감이 업겟습닛가』

『네 그저그릿습시오만은 단지 썩하나를 여서성취시켜서 자미를보조고 마음
이일상 조급하고이다그러 제마음갓흐면 데릴스위를 엇어셔 스위겸 아달겸
하여 다리고잇고심이나 썩 한편으로성각하면 님남 할것업시 처가사리하
러오는놈이 변변흔놈이야 오겟습닛가 자연히 못성긴놈에 갓가운놈이 처가
사리라도 하려고덤벼들터이니 그러코보면 살년의장리신세가 가궁할것스니
다 난처흔일이올시다 좌우간에 신랑감만 극가흔사람이잇스면 아달이라도
불게하고 시집을보내려고합시오』

『실상인즉 다 다름이안이라 썩님씩 동흔하는데가잇셔서 너가의론초로 온
길인디 먼저한마디 말씀을것은 본리흔인이라것이지 그부모도 합당할게알
겟지만은 첫째로 원당즈가 도와히야지 처음부터 마음에부족할일을 여지로



마지못히서 하고보면 장리에 피쳐서로 다 저미업는일이 성기는법이니 너
 가 흥혼을 혼다고 조금이라도 어려워이시고 말을못할것업스니 만일마
 음에 부족하시거든 조금도어려워하시지말고 못할것은 못한다하고 할것은
 한다고 말하여주셔야 합니다. 스님으로 말하면 두서너살부터 나를 저의어
 미갓치알고 따를뿐더러 나도 저를천자식갓치 아는터인데 조금이나 제몸의
 후분에 관제될일은 할리만무하니 너말에 불합당흔터잇거던 은휘하시지말
 고다 말씀하여주셔요』

『천만에 웨 그것게말씀을하심닛가 도리어섭섭합니다 어서말씀을 하여주십
 시요』

『그럼 너말씀을하오리다 신량은 다른사람이안이라 나의 천정죽하 정옥쇼에
 게 비필을맛초고조 하는말이니 의향이 엇더하신지오』

리괴장은 정부인의말을 드르미 속마음으로는 깃부기 이를티업스나 외양으로
 는 모양을보이며

『야 천만의말씀이오이다 그런귀하신지상이 이런시골농도에 못천사름과 결
 혼을 할려하시겟슴닛가 천만의말씀이시지오』

정부인은 빙그럼이 우스며

『그게 무슨말씀이시오 나는진정으로 하는말인데 너죽하도 위하거니와 너살

갓치야는 스님을위하여서 중미를들녀고 하는것이니 심분성각하여보시오
 너죽하로 말하드라도 나히는점어도 위인이점잔코 상업지안이하닛가 덕스
 님하고는 과연 천정비필이 될듯하니 불배하고 너말티로만하시오 바로당
 신마음에 업셔사 못하겠다 하는것은 할수업지만은 그것게겸사로 말삼하
 실것은안이야요』

리괴장은 이 흥혼하는 말한마디가 얼마큼기거우리오 장중보옥갓치 귀중이
 역이논 녀식을두고 사방으로상당흔 신량을 광구하나 맛춤터 엇지못함으로
 일々번민이 지녀더니 이날정부인의 말은 진소위 주린범이 고기를 당흔겨이
 라 정옥쇼는 본리일음이 모다 흥양하든터이며 지위도 지상에이르고 학식파
 인물이 모다 출중하여 사름마다 공경하고 스모하는테이오 중미의수고를 할
 는사람은 자기가 천형제갓치밋고 바라는 김승지의 터외라 리괴장이 웃지심
 중에깃부져 안이하리오 다시 그부인을향하여 고마온뜻을 표하노라코

『그저 너오황감하오이다 제살년은 낮키는 제가하엿셔도 사름만들고 못만들
 기는 덕령감녀외분손에 달녀잇스니 저는하라시는터로 할뿐이올시다 자량
 하여서 하십시오 그리지안이하여도 신량을 구하지못히서 일상 근심이더니
 이렛케 마음을써서 주시는성각을하면 정말고마온마음에 눈물이남니다 그
 러하』

데십사화

이날은 리경조가 맞춤그동리 천척의 집으로 심방갓던날이라 늦도록 집에 도
라오지안이하고 다만리괴장이 홀로정부인이도라잔후 깃분마음을 의의지못하
여 안진자리가 싹듯홀스이가업시 안졌다 일어섯다함며 리경조의 도라오기만
기다리며 혼조중얼거리다 또는 우섯다함고있더니 마침 리경조가 문으로쫓츠
드러오는것을보고

『오인제오나나 오날은 웨 그리올이가셔 잇섯나나 나는 너오기를 눈이싸지
도록 기다렸구나』

리경조는 그부친의형식이 평일과다름을보고 심히이상히녀이여

『오날은 무엇이그리 더느섯다고 그러케 기다리섯셔요 아버지 말씀하시느것
이엇전지 무슨도흔일이나 생긴것갓습니다그려』

『아—도흔일이성기고말고 이외에 더도흔일이 어디잇겟니 어서이리올나와
여기안져라』

『오날저넘엇말 아쥬머니집에를 갔더니 저— 그아쥬머니썩셔』

『앗다 그이야이는 잇다함고 니말부터 먼저좀 들어보아라』

리경조는 그부친의 황황이 날뛰는모양에 엇지흔영문을 아지못함며 부친의얼
골을물그림이 처여다보며

『아 무슨말씀이셔요 갑갑하니 어서말씀하세오』

『응다른말이안이라 요이웃김승지집 아쥬머니가 계시지안이냐 그어룬이
오날오섯드구나 달니오신게안이라 네혼스일절로히셔 일부러 츠조섯는
티신량은 누군구하니 월전부터 여기날여와사는 서울유명흔 쇼년지상에
정옥조정협관이라고 잇지안이냐 그가 너를다려다가 안히를 삼으려는작
덩이니 나는 지상스위를 들모양이로구나 이러흔경스가 엇의잇겟니 우리집
갓치한미흔집으로 그런도흔가문과 혼인을할슈가 잇겟니만은 지금은세상
이모다 기명을히셔 문벌은보지안이함고 사름만보는세상이라 그러함지넷
적갓흐면 어림도업다 그부인만하시드리도 너를 천조식갓치아시닛가 아모
도록 네게유익함도록 마음을쓰는 터이로구나 그량반이가실셔말씀이 너를
보면 또 저셔히말함겟노라고 하시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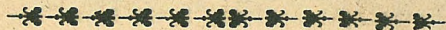
리경조는 붓그림에 얼골이취함여지며 고기를숙이고 말이업는지라 리괴장은
다시라 일으는말로

『이 너도마음에 쇼켓지 내마음이 이러홀데야』

리경조는 잔신이얼골들며

『아버지 나는실어요』

리괴장은 그소리에 삼작놀녀어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도훈 회를 늦치고 었지랑라고 그러나나 다시 잘 생각해보렴이나』

『요전부터 아버지께서 눈을 깜하고 나하라는디로 하라하시기에 나는 아버지 한분을 위해서 대답은 하였습니 다만은 이 데레헌몸을가지고 누구에게인 들 무슨 낫으로 식집을가라고 하였습니가』

리괴장은 팔장을끼고 한참동안 김희싱각을하더니 홀연 무슨싱각을 하였는지 『그러한지 네말도를라 그러나 너의과슬은 다니가 맛타가지고 잇스닛가 무슨일이잇던지 다니가 당홀터이니 너는 조금도 녀려할것은업다 니가 살 아잇셔々 너를식집보니셔 잘스는것을 보지못하면 죽어셔라도 원혼이될터 이니 아버의마음도 좀싱각하여야 안이하나나 이렛케도는혼쳐를 늦치면 다 시는 또엇기 어려울터이니 니몸은 어는지경에가던지 네죄는 니가다뒤집어 쓰고 너하나 식집을보너셔 잘스는것을 보아야하겟다 나는하느님이던지 부 처남제던지 벌역을입어셔 더욱에가 빠지드리도 너하나를 위해서 무슨짓 이라도하겟다 만일네가 식집을가셔 잘살다가 면일의흠절이 탄로가되여셔인 연이 씌어지게되면 그때는 네죄를니가 지고잇는터이닛가 니손으로 즈수라도 하여셔 네죄를 풀어달라고하면 설마 사름치고야 그스정이야 안이보아슈 겐니 또김승지부인만 하시드리도 네일이라면 슈야를볼게하고 극녀쥬션하시는 량반이니 네가 식집가면 죽하며니가 되겟구나 그때는더구나 네치닥거리야 좀잘하여 슈시겐니 아모싱각말고 나하는말되로만 하여라 니가이게 네게 마지막원이다』

리경조는 심난흔괴석이 얼골에 낫하나며

『아이고 아버지께서는 작고그릿케만 말씀하시니 식집을갈터이면 찰하리전 일 제가 지은죄를 일판을 이약이하셔 그 김승지집아 슈머니도 니가 그러하든 폐집인줄을 아시고셔도 혼인을하신다하면 그때는 아버지말씀되로 하겟습니 다만은 제죄를속이고야 하늘이무셔워 었지 식집을가라고하세요』

리괴장은 또흔 삼짱놀니이며

『이게 무슨 자각업는쇼리나 그말이낫다가는 그릿케 네게 친절하시던 김승지부인도 절교하실터이오 나와는 그때가셔야 더구나 무슨설이되겐니 아예 실업슨말쇼리도 그런쇼리는 하지마라 전일에는 네말이 네몸은 언의지경에가던지 니게 아조맛겨셔 나하라는디로 순종을하겟노라하더니 그럼그말은 거짓말이나 설마 거짓말은 안이겐지 어이 니마음이 좀시원하게 되답을히라』

데십오회

리경조는 묵々히말이업는디 리괴장은 조금하마음을 익이지못하여 『이이경조야 너는지금아모리 실으니 었져니 하여도 나는 받셔마음을 결단하

옛스닛가 네가아모리 실타하여도 아마쓸티업겔다』
리경주는 그부친의말이 평일과달음을보고 얼골에 원망하는괴식을 낫하너며
부친의얼골을 치여다본다

『아버지씨셔는 말셔결정을 하섯다하오니 니가아모리히도 듯지를안이하면
엇지하제요』

리과장은 길게 한숨을지으며

『내가 정이 못하겔다하면 할수업지만은 그티신 나는 엇지될는지 알수있디
만일이번혼사가 파의가되는날에는 나는 성병이되여셔라도 죽지 살지는못
하겔다』

리경주가 니럼에 생각하건디 부친은 불초한이몸으로하야곰 금년이리로 더욱
이 쇠피하신모양을 뵈을씩마다 자식된마음에 황송한마음을 금기어렵거늘 또
흔 이몸의혼스로하여 저러듯 심려를하시니 만일니가 부친의말씀을 응중치안
이하면 그씨는 부친씨셔 락심을하시고 공연히 슬허만하시리니 자식이되여
비록효도는 하지못할지언딩 엇지도로혀 심려만끼치리오 지금이몸이 이세상
에서 구차한목숨을 부지하여가는것도 다만 늙은부친한분을 위하여셔 살아잇
는것이니 이몸은 생각하지말고 부모를 안심하시도록 하는것이 나의 썬사할
도리가되리라하여 비로소 마음을 결단하고 강인히 조흔괴상을 뵈이며

『그러듯 아버지말씀을 안이듯겔스닛가 아버지의향계신터로 하시는것이 쫓
겔습니다』

『오— 그러하겔지 인제야 니말을알아들었구나』

하며 깃거운마음에 늙은눈으로 눈물이 가득하여저며 경주의등을 어로만진다
『이이경주야 다시는 그런지각업는 소리하지마라 아— 니속이 인제는 시원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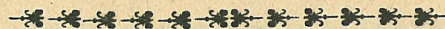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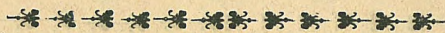
리경주는 고기를숙이고 잔신이 입밖게나오는 목소리로

『네—』

하고 티답은하나 속마음으로는 니가아모리 나의과실을 숨기고 식집을 갈지
라도 어나셔던지 괴회를엇으면 남편의압해서 자기의 작죄흔일을 자복하리라
고 결심하엿더라 리과장은 경주의 허락을드르후 즉일로 량가가 셔로결혼하
는언약을 맞치고 불일니로 길일량신을 턱하야 성례코자하더라

이와갓치 혼인이결정됨의 리과장의 환련희디하는모양은 이로형언키 어려오
나 경주는 도로혀 각식으로 근심이 흉중에 왕리하는도다

혼인은 임의결정이되얏스니 이왕일이 이에 일은후에는 다만 부친의마음을
더욱 편이하여드림이 오르리로다 부친은 저와갓치 깃거워하시거늘 이몸은
엇지 부모에게 깃거온나을 보이지안이하리오 부친의마음을 영구도록 편안이



하랴 하면 이몸이 출가할 후라도 남편을 극진히 밧드려 너외가 서로 화합히 지니
야 부친께서 더욱 도와주시리니 내 몸은 이져바리고 남의 안히가 된 직분을
다 하리라 이몸은 본리 부친을 위하야 이세상에 살아잇는 것이 어늘 부모를 위하
여 하는 일 에야 무엇을 스양하리오 내가 비록 출가하는 것이 나의 본의는 안이나
스세가 이러하니 억지로 하지 못할 일 이로다 그러나 이몸이 전일에 지은 죄과를
숨기고 남편을 다 시 섬기다가 만일 나의 허물이 탄로 되어 남의 집으로 좃츠 남편
의 귀에 드러가는 날은 그 때는 이몸이 다시 남편과 하여지는 비참한 경우를 당
할지니 그러하면 그는 도로 허 죄상첩죄가 될터이니 찰하리 처음부터 남편에
게 다퉈물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으리로다 그도다 시성각하면 할슈업는 일이
오 그러하다고 인순도 일하다가 중간에 발설이 나서 남편이 용서를 하여 쥬면
도 흐려나와 만일 그러치 못하여 리혼을 하는 터 일이면 이몸은 본리 이세상에
업는 지라 한가지로 아는 바이나 저렇듯 질거위하시던 부친께서 오작이나 락
심하시리오 백이 스량을 하여도 좌우가 난쳐하니 엇지하여 이몸이 무슴업원으
로 이세상에 출성하여 이렇듯 부모를 고심식이는 고 엇지하여 전일에 허실을
잘못가 졌듯지 내 몸을 조심하여 결백한 몸으로 잇섯든들 이근심더 근심 할게 업
슬것을 이몸으로 하여 부친이 이계 무슴 죄리오 하며 옥안에 누슈가 왕왕이 썩
러진다

대십륙회

이번에 이결혼을 호연(好緣)이라 날가들는지 또는 악연(惡緣)이라 할는지 미
리 파악하기 어려울 일이라 정옥조와 리명조 두사람스이에 괴어히 인연의 실을
미졌는 고로 결혼의 절츠를 속속히 진행하야 성례하는 일츠를 뒤하여 오월이십
팔일로 결정하고 성례하는 처소는 경성정씨의 본데에서 거행하기로 하니라

이혼스가 확정된 후로 공슈업사들은 남녀로 쇼를 물론하고 사람스스 이모
다 리괴장은 식골성원님으로 졸디에 지상스위를 었었다고 놀너지 안이 할 사람
이 업스며 또는 리명조의 형복을 부러워하고 리괴장은 비록 지상의 장인스감
이 부족하더나 그 규슈리명조의 지식과 품행은 능히 지상가의 쥬부가 됨직
함을 일가르며 리명조를 위하야 모다 치하함을 마지 안이 한다 그러나 리명조는
량심의 붓그러운 빛이 잇서 사람의 얼굴을 티는 기도 붓그러워하여 문을나지 안
이하고 호을로 고요한 방에 안져서 한 단과 근심으로 세월을 보낸다 그러나
부친리괴장은 이혼스의 결정된 일을 이세상에 업시 즐거워하며 혼슈법절을 극
치극미케 하여 저물을 앓가지 안이하고 화려함을 쥬장하야 쇼곰이라도 서울지
상가의 혼인으로 남의 이목에 초솔치 안이 하도록 쥬선하더라
살갓치가는 세월이 밧서 씻은 떠러지고 처처에 녹음이 성하여 오월중순이 되었
는 터 불일잔 리괴장은 서울로 명조를 다리고 올라가서 혼례를 이루려 하더라

리경조는 이위출가하기로 부친압해서 결정은 하였으나 항상속마음에 용서치
 안이하는 생각이 앓슴으로 근심하는얼골을 폐일날이업스나 다만 부친의마음
 을 위로코자하여 스스로강양하여 부친압해서는 웃는얼골과 깃거워하는 모양
 을 보이되 김고김흔마음속에 빅여있는 한낱근심은 졸연히살아지기 어렵더라
 더욱이 부친은 조기의혼인제구를 준비하시노라 쥬야로 근로하며 일읍사람들
 은 모다 경조를위하여 치하하며 절거워하거늘 만일이몸이 출가후후에라도
 내가슴속에있는 비밀흔스정이 탄로되야 리흔을당하고 짐으로도다시 도라오는
 디경이되면 무슴면목으로 넷집터문에 다시 발을드려노으며 또는 동리사람들
 에게는 무슴염처로 얼골을타하리오하며 생각할때에 심중에 소스나는 근심은
 실패한두가지안이라 슬푸다 이한몸은 비록 희성에 이바지할지언딩 다시는
 구가에도라오지 못할몸이나 한번몸을 허락후후에는 선악간에 일성을 남편을
 잘빳드려서 부친의마음이나 편안케하는일이 맛당하리라 그러나 리흔을 당할
 작덩으로 하지안이하면 이몸의 비밀흔스정을 조복하지 못할터이니 엇지하면
 이몸이 지은죄를 남편에게 조빅(自白)함을 었으리오 도덕처이몸은 무슴연고
 로 이와갓치 죄만은사름으로 타엿는고하며 고요한밤에 조리에누어 번외하
 가 인하여 철야한일도 여러번이러라
 정옥조는 전괴하여 경성본저로 올나와 혼례준비를하고 리괴장의부녀도 또한

상경하여 처소를정하였는데 임의 턱일일조가 다스르미 신랑신부의집을 물
 론하고 친척빈객이 구름갓치 모드여서 그 혼잡한거동은 지필로다하지못할네라
 그날을당하여 리괴장은 아참밝기전부터 잠시도 안지안이하고 공연히 분쥬하
 다가 어언간에 시잔이됨이 신랑이일으려 전안교비하고 신부는 신랑을쫓츠
 신가로보닐때에 응장성식을 갖초우고 스인교에 올으려하는경조를 다시볼너
 손을잡고 종용이경계하여 일으는말이
 『어! 참그렇게 단장하고나서내가 정말로 어엿부구나 너의 어머니가 오날
 날 사라잇셔너네모양을 보앗더면 오작이나 조와하겠네』
 하며 눈물두셔너방울이 소미를져서인다
 『아! 오날갓치 조흔경스스날에 공연히 쓸터업는소리를 너다려하였구나 허
 々々 그러나 이의경조야 너는 지금으로 우리집을 떠나서 식가로가는날이
 니 너와나와 작별이로구나 너를보닐제 너가한마디 부락할말이있다 이말은
 너다려 항상하던말인고로 또다시 길게부락할것도 업지만은 오날々 너의몸
 은 이세상에 다시타여는 사름으로만알고 이전지너인일은 이져바려다고엿
 더흔큰일이 싱기드리도 그것은 너가다 담당할터이오 너에게 근심은 셋치
 지안이할터이니 부디명심하고 너는단지 너의남편만 잘빳들어서 평성을화락
 하게 지너게하기를 나는 축슈하고바란다 너가드르니 정협관은 부모가다

도라가시고 다른지미도 엮다하니 식집스리하기도 덕단편하겟더라 정협관
만 잘밭드러셔 뇌외잔에 의젓도록 산다하느말을 뇌가드르면 늙은얼굴에 주
름이 폐일듯하다 이것이 나의 평성소원이니 지금까지 허은일은 『물에흘녀
보내고가서 식집스리 잘하여서 이 늙은아비의 마음을 편케하여다코』
하며 정에못의의여 또호 눈물이방울々々 떨어진다 경조도 부친의 지지정에
감동되어 눈물이 단장을 흘니우며 늦기며말을 못이루다가
『네— 인제는 마음을 아조결단하엿스닛가 결단하코 아버지씩 심... 심려를
셋치지안이하도록 하겟습니다』
하며 부친의 손을 얼골에다이고 고기를숙이더니 조조늦길뿐이라
『오— 그말을드르니 인제는 뇌 마음에 엇지조흔지 모로겟구나 아셔라 우지
마라 이런조흔날 우는것이 무엇이나 어셔진정하여서 가마타고가거라』
하며 등을어로만지며 슈건을뇌여 눈물을씻기고 손을잇글어 스인교에 티우니
경조는 목이매여 부친에게 똑々이 인스한마디도 못하코 총々이집을떠나 신
가로 향하여가니라

데십칠회

리경조는 슈모와시바의 인도로 도라간시부모씩 스당폐백이며 원근친척에게
일々이 상우례를맞치고 다시 방안으로인도하여 좌정후 잔치를 시작하여

여러친척이 환희지중에서 원만이례식을맞치고 황혼에일으러 모다허여져도
라가니라 그러나 김승지의부인정씨는 일뇌로 몸의슈고를 이져바리고 대스를
주장하여 지휘를하며 첫지로는 조귀의친가에는 이만흔경스는 다시업는줄로
싱각하여 밤을쉬우며 존거름을거러 일을쭈선하나 괴로운빛은 조곰도업고 희
식이얼골에 가득하여 세가지로 질거위하니 첫지로는 조귀의친정후스를 다시
잇게됨이오 들지는 친정족하로하여곰 마음을다시돌니여 어진비필을 구함이
오 세치로는 비록괴출은 안이로되 친설과조곰도 다름이업는 경조를 합당하
신랑에게 출가시키여 백년을누리게 함이러라

슬푸다 일조일석에 쌍결갓치 정가의집에일으러 사람々々이 모다셔투르나 다
만씩々로 정부인이안져잇는 엽헤와셔 이야기 저야기할씩는 마음이적이 진정
되다가 그부인도 밧그로나아가고 호을로안져잇슬씩는 가련무죄하 아녀조의
조고마흔 가슴에 천스만념이 물결갓치 도는도다
이러구려야심함의 정육조는 사랑에모이엿든 빈귀을 모다접티하여보니고 뇌
당으로드러와 경조가잇는방으로 드러오니 휘황등축이 고흔단장과 찬란흔
의복으로 모으로 고기를숙이고 안져잇는 경조의얼골을 빗초이니 그연々흔형
용과 단아흔티도는 진쫓던상선녀의 가림이안인가 의심할지경이라 인비목셔
이라 정육조도 얼마큼 감동이 되얏던지 목소리를 정당히하여

『이번에 다행히 부인과 인연이 있셔々 나 갖흔 사람이라도 멀리 바리지안이 하고 와서 주시니 니게 되여셔는 이위에 더업는 행복으로 아는 바오 그러하고로 우리가 오날々 부가 된 이상에는 니 마음에 있는 감정과 희망은 조곰도 감초 지안이 하고 말을 할 터이니 드러 주시오 더구나 니 외라 하는 것은 서로 통정을 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나 종에는 좃치 못하 결과를 떠는 법이니 그러하 것은 아 조디 고향은 사람이 오』

경주는 슈구리고 잇던 고기가 점々 더 슈구러지며 티 답을 못하는 티 정육주는 다 시 말을 련하여

『아마 부인도 우리고 모어른 썩로 하여 니 집 일을 티 강드렸슬 듯하닛가 즈셔히는 말하 지안 소만은 나는 전일에 안히라고 하나 잇々 다 불미흔 형위로 인연 하여 천가 도로 보니고 그 후로는 한 가지 염세증(厭世症)이 생겨서 세상에 서 활동하기가 실코 이 세상을 떠나 숨어 살려고 결심하얏던 바이오 또는 바로 말 할 지경이면 세상에 계집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 미지 못할 물건으로만 아랏더니 다행히 우리고 모 말씀에 그러치 안이 힘을 썩다고 오날々 이와 갓치 부인과 절거이 인연을 미졌스니 나는 진실로 부인과 갓치 아름다운 안히를 마 즈은 일에 티 하야는 전일에 고벽하던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썩 다른 일이 후회 막금이오 그럼으로 부인도 니 마음을 그러하 줄로 아라 주시기를 바라오 그



리하고 나의 전일너즈를 불신용하던 마음을 전혀 도로 썩다 하는 말은 안이로 티 부인 썩 티 허셔는 티 썩만치도 의심을 두지 안이 하오 이 세계에서 니 가진 실마 음으로 미는 즈는 우리고 모와 부인과 두 사람 썩이오 그런고로 부인에게 티 허셔는 조곰도 마음을 은취하 지 안이 하오 니 마음과 부인의 마음이 서로 연락이 되 여 떠나 지 안이 할 줄을 미고 바라는 바이오 부인의 마음의 결백하 일과 부인의 형실의 원전하 일은 니가 부인에게 가장 미는 터이니 부인과 나 두 사람의 스이 를 화합하는 물건은 즉 부인의 결백하 마음 하나 썩이 오구려 만일 부인이 니마 음에 미지 못할 녀즈면 당초에 이혼인이 되지 못하얏슬 터이니 나는 이제부터 몸에게 득흔 사랑을 부인에게 티 하야 드리고 즈나 이의정(愛情)을 영구하 도록 북도 다 줄 사람은 부인의 마음 하나 썩이오 정당하 의 리로 사랑과 정으로 티 진 두 사람의 스이는 엇더하 물건의 힘으로도 능히 스이를 썩이지 못하는 법이 오 나는 이성이던지 두 사람이 몸은 각々 이라 하여도 마음은 한 가지로 가기를 바라오』

인々 스々이 가슴을 썩르는 듯하 남편의 말에 경주는 스지가 나무 입 썩 갓치 별々 썩니니 얼골 빛도 팔앗케 질 녘 슬연만은 다행이 분바른 얼골이라 남은 아 지 못하 엇더라 남편의 말을 무엇이라 적당하 티 답을 하지 못하야 썩니는 목소리로

『나... 나는 그렇게 결백하 계집이 안이야요 죄도 만코... 결담도 만은 계집이



로 이렇게 주어 주시니 너무 황송하오이다 더럽고 더러운계집인디 엇더케 너
..... 니가 그말슴을 감당할닛가

『안이 그말은 그럭케할말은안이라 더러운계집이라하는것은 너무겸손하야
하는말이지만은 사름이라하는것은 잘만하라는법이야 어디잇소 무론결덤도
잇겟지 그런고로 잘못하는 결덤은 서로경계하여가며 도와가며 살아야지
처음부터 결덤업는사름이 어디잇소 그저진것은 거정할것업소 단지 너성품
은 거짓말과 바르지못한것은 결덤이안이라 죄악이니 부인은 그러할죄악은 가지
고잇지 안이흐줄로 안는고로 나는 제일그것을 깃거워하는터이오』

경조는 남편의얼골을 감히 쳐다보지도못하고 슈곳하고 안져잇서 전신만셀
니니 더 답하러하던말도 목박게 나오지못한다 정욱조는 너저의연약한마음을
넘어경동케 하였는가하야 다시말소리를 나죽이하여

『넘어여러가지로 조소리를향앗더니 부인의마음을 공연히 공동케하였나보오
그러나 그말을 다하여두지안이하면 너마음이항상 세뫼지못할고로 그리흔
말이니 그만하면 너마음도 더강아실듯하니 그만두겟소 그러나 나는 고벽
하고 결덤만은 사름이니 남편으로 정하신이상은 어디서지든지 사랑하여
주시오 나는 벌써홍금을열고 부인을 사랑할터이니 우리두사름스이에논영

구히 이정이 변하지안도록 함시다

하는 이정이가득흔 남편의말에 경조는 잔실히얼골을드러

『내야말로 아모것도 아지못하는 결덤만잇는계집인디 령감씩서 그러케말슴
하시니 아모리 못성긴계집이기로 몸이가로가되드리도 건질을바드러 견마
지역이라도 도와드릴가합니다』

하며 잔실히말을맞침이 정욱조는 그모양을 이우도록보다가 갓가이나아가 그
욕슈를잡고

『여보나는 아무러한일이 잇드라하여도 벌써 부인의에는..... 이 나의 사랑을
줄데가업소』

홀썩에 경조의눈에서는 남모로는 눈물이썩々 정협관의손등에 떠러진다



그잇흔날 정욱조는 평상에처음으로 온화흔괴식과 만족흔모양이 현연히얼골
에 나타나며 경조는 다만 얼골에 붓그리는괴운이 가득하며 안식이 적이푸르
릿스나 다른사름들은 그괴식을저세히 알아보지못하더라

경조의 시비와슈모가도라가 신랑신부가 극히희열하더라는소식을 리괴장에게
전함의 리괴장은 그 괴별을듯고 환련히디하여 다시는더바라고 부탁할것이 업
는듯이 힘장을슈습하야가지고 깃거운마음과 든든흔정리를 회중에품고 일즉

이 공주로 향하여 떠나가니라
 이 날로부터 정육조의 부부는 교밀흔금슬이 도데화쇼(鳥啼花咲)하는 삼춘화과
 가 다시 이 정씨가 덩에 이르렀는 듯이 이 (鸞鸞)흔춘풍이 만당온화(滿堂溫和)하
 더라
 날이 가고 들이지니 일수록 경조는 남편의 싹싹한정이 몸에 밋치미 더욱 조과의
 지은 죄가 두려우며 지금은 밋쳐 니 죄를 남편에게 조복홀과회를 일웠스니 이후
 에 다시 조복홀과회를 기다리려하면 그안은 엇지 니 죄를 숨기고 남편을 하로
 라도 밋들니오 더욱이 남편의 성품은 거짓말과 바르지 못한일에 더하여는 원
 슈갯치 아는 터이 어늘 바르지 못한 거짓말만은 이몸으로 그 남편을 속이고 밋드
 는 생각을 흠이 스스로 하늘이 무섭고 마음에 두려워하여 몸이 열분어름을 드딘
 것갯흐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숨가아 다만 남편의 싹을 억의지안이 하고 밋드
 니 본리부터 경조의 결백함을 밋고 또한 아름다운 용모에 마음이 움직인 정육조
 는 정부인에 귀약홀바와갯치 비로소 니외간 사랑을 쉰다라 경조를 총이 흠이
 경조는 남편의 이정을 혼신에 바드나 그러나 깃거운마음이 일어날제마다 한낫
 근심은 붓춍추단나더라
 정육조는 본리 경성변화흔곳을 도와가지 안이 하는 성품이라 혼인후 십여일을
 지니여 다시 공주읍니로 경조와 한가지로 나려가 한가히 세월을 보나더라

정육조와 경조스이에 정리가 점차 천밀하여감을 그곳김승지와 정부인이 보미
 깃거운마음을 억이지 못하니 정육조가 싹싹한가정의 자미를 알고 인성의 취미
 를 쉰다라 세상에 활동케함이 정부인의 평성소원이러니 과연 그부인의 바라던
 바가 헛되지안이 흠을 심이 깃겨워나더라
 그러나 정부인보다 더욱이 깃겨워하는 사람은 리과장이니 정협판니외의 금슬
 도흔것을 볼적마다 또는 들을적마다 한업시 질기며 미일정협판집에 이르러 그
 모양보는 것으로 데일락을 숨고 지니더라
 정육조와 정부인과 모단집안사람이 리경조의 아름다운얼골에 단정하게 죽진
 머리는 누가 보던지 아름답다 일커르지 안이 홀사람이 업스되 다만 열 칠팔세시
 디에 저와갯치 아름다운머리로 지니는 일은 생각하는 사람도 입거니와 천연히
 아지 못하더라 그러나 리경조는 조과의 비밀흔 스정을 오늘날 서지라도 잊지 못
 하고 시시로 지닌 허물을 생각하고는 가슴에 천만가지로 근심을 진정치 못하
 며 리과장은 정육조가 경조에게 향하는 마음을 보건디 비록 추후하여 안희의
 비밀을 알지라도 화목홀부스스이에 줄연히 인연을 싹치안이 하리라고 짐작하
 며 만일 싹을 지경이라도 그때는 다시 니몸이 최후슈단을 취하여서라도 부스
 의스이를 견고케 만들리라 하여 스스로 안심하며 또는 주소로 하는 남편과 부처
 에게 기도축원하여 어린외손 하나 출성하기를 바라더라

데심구회

철석심장을 가진 남조라도 씻갖은미인의 아름다운티도에는 조연히 마음이움
작이는법이라 하물며 너몸을 환영하여주는 마음이있고 너몸으로부터 저사람
에게 향하는정이있서 두마음이 한가지로합함이 락화유수(落花流水)의정이
엇지안이동하리오

루 옥 쌍

정옥조와 전부인스이는 처음부터 상합지못하야 지과가셔로 통치못함으로 쾌
락흔세일을 보너지못하다가 맞잡너 불의흔결과를 당하엿스나 리경조에티하
야는 임의 그인물을 확실이 신용하는바이잇스며 또흔경조의행동을 볼지라
도 사름으로하야곰 신용을마음이 스스로 일개하는바이 잇슴으로 처음부터
마음을 허락함이오 전부인에게 데인가슴이 아모도록 화목흔가정을 짓고조하
며 스스로마음을 강잉하여서라도 감추어두는마음은 풀어바리고조하야 경조
도또흔 그남편을 지성으로받들미 만스에 일테로 근신하는성질이 남편의성품
에 맞는지라 그럼으로 날이가고 들이지닐스록 정옥조의마음은 점々 경조에
게향하야 김히갈뿐이러라

사름이라는것은 본리부터 완전무결하기를 엇지바라리오 경조도 다소간 한결
덤은 잇슬지라 그러하나 그중에도 가히용서치못할 전일의죄과를 풀고잇는
몸일지라도 지금에일으려서는 사름에게향하야 조곰이라도 붓그럽지안이할만
한 결백흔몸이 되얏스며 또는 반복무상(反覆無常)흔 인정풍과(人情風波)를
지니여 아는사름이라 조곰도 부허할마음은업고 더욱이 영리흔성품과 심신하
는마음이 사름에뛰어나며 온순할마음으로 남편을받드려 녀조의도리만 직힐
뿐이니 이와갓흔 현부양쳐는 다시업슬지라

루 옥 쌍

그러나 이와갓흔 어진안희를 엇고도 돈연히 마음이움자이지 안이하야 셔로
정의를 통치안이하는 남조가 만일잇슬지경이면 그는진실도 인정을모르는한
낫혹독흔동불에 지너지못할지라 사름들은 말하되 정옥조는 표면과 과거스
만보고 다만 텅담흔사름이라고 일켜르나 마음깊고 김흔속에는 무한이똥똥흔
정이 싸여잇나니 이안희의 아름다온바탕을 알므로쫓추점々 숨어잇던정이 외
양으로 낫하느니 진실로 그는역시 한리치가 잇슴이라 비유하야말하건티 아모
리박도라하야도 그속에는 살진흙이 잇건만은 사름으로 그를아지못하고 곡식
을심어도 씻도안이취이고 열미도안이밋는다말하나 만일 그쌍에 거름을 퇴하
여써서 속에는복하야잇는 토지의 양분(養分)을 상승케하면 비로소 향기로온
씻이취이며 아름다온 열미가 밋는것과 갓홀지르다

그러나 정옥조는 사랑에 전연히 정신이빠지는 사름의성품이안이라 조과의
어디서지던지 목척하는바는 정의(正義)나 사랑으로하야 나의주장하는 정의
는 바리고조하는사름이 안이라 만일정의에 틀이느일이잇스면 엇더흔사랑일

지라도 부운에 붙치는니 정육조가 경조를 사랑함은 다만 그 용모의 아름다움을 취함이 안이라 가장 그 정당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함이니 정육조는 셋보다 열미를 귀히 녀이며 그 열미를 사랑함으로 좃츠지연이 그 셋도 사랑하느니 일 음이러라 원리로 정육조는 경조의 아름다운 열정과 티도를 사랑안이 함은 안 이로되 그 사랑은 다만 그 마음을 사랑하는 남이지 사랑에 지치지 못하느니 비 록 남아지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용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두가지의 사랑이 한곳에 합함이 그 사랑하는 세력은 진실로 무엇에 비하기 어려오니 경조의 아름다운 마음과 용모의 세력이 합하여 정육조 의 이정을 점々 북도드느니 료가 됨이러라

이왕갓치 정육조는 정의를 사랑하는 열정(熱情)이 편벽된 이정갓치 되어 경조 를 알기를 녀신(女神)이 화신(化身)한 것갓치 밋으며 또는 사랑하느니 일으 렷더라

원리 무론 무삼일이던지 오리도록 저축하였던 힘이 말할 때는 그 세력이 극히 강 대한 것은 텅디간 셋々 흘러치라 그림으로 오리듯한 감초여서 말치안이던 정육조의 이정도 또한 이리치에서 버셔나지 못할지니 비로소 봄을 만나 땃동하 는 풀의 싹이 일취월장하는 것과 방불하다 정육조는 조그의 이상덕(理想的)안 히를 엿어 점々 인성의 싹싹한 봄을 만나 미 이와갓치 어진 안희와 절거운 텅디가 잇슴을 모르고 경솔히 인성을 비관(悲觀)한 일이 뉘웃치며 이제야 비로소 행복 스러운 가정을 성립하여 쾌락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님을 절거워 한다

데이 심회

리경조는 그 남편이 성심으로 너움을 사랑함을 보미 출가하기 전에 마음에 거 리 세든 근심은 점점 업서지고 절거운 마음이 한이 없다 그러나 남편이 이 몸을 사랑 함은 다만 내가 거짓말 업고 결백한 녀지라 하여 사랑함이 어늘 만일이 몸의 전일 비밀한 스정이 숨어잇는 줄을 아실지경이면 단정코 용서하지 안이하시리라 생각함이 남편의 사랑이 점점 더 할수록 가장 마음에 죄송하여 잠을 이로지 못하 는 야반심경(夜半深更)에 홀로 하늘을 우러러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축슈 하는 일도 잇더라

리경조가 출가하기 전에는 마음에 생각하되 너움은 다만 부친을 위하는 마음으 로 남편을 다시 엿고조하였스나 한번 죽은 이정(愛情)이 다시 소스나 올날은 업스리라 하여 그를 근심으로 하였스나 그는 나히만은 녀지는 알슈업는 일이 어 니와 싹갓흔 청년녀조의 이정이라 하는 것은 비록 한번 실패를 하였슬지라도 비 유한 건디 겨울에 락업된 초목과갓하야 그 이듬해에 봄이 다시 도라와서 우로 (雨露)의 은택이 나릴 때는 시로이 고흔 싹이 나을지니 하물며 사람의 감각 (感覺)이 령민(伶敏)한 녀조의 일이라 경조는 스스로 남편의 사랑을 마즈려하

여 힘쓰며 그 남편의 간격(間隔) 업는 사랑에 그 두터운 정을 아른후에는 다만
 힘쓸뿐안이라 진실로 남편을 경의(敬愛)하는 마음이 저연 소스나 왔더라 지금
 에 이르러와서는 전일 서병슴에게 향하는 뜻 사랑이안이라 실상이잇는 정이되
 야 경조가 정옥조에 배 디흐열정(熱情)을 정옥조가 경조에 배향하는 이정(愛情)
 보다 가장 심원홀물건이 되었더라
 비익연리(比翼連理)를 계약홀몸이 싱즉동유(生則同住)하고 스즉동혈(死即同
 穴)하듯하는 마음이 산절홀씩마다 만일이몸의 비밀이 낮하나서 남편과서로
 허여지는일이 이슬갓갓흐면 부친의 락심하시는것보다 뇌몸의 간절홀과 비창
 홀이 엇더하리오하며 생각홀의 남편에게 언제던지 뇌죄를 저복하리라하던마
 음이 점々 열버가고 금병몽(金屏夢)은 화홀춘야(春夜)가 기천년이던지 장구(長
 久)하라고 심중으로 추원하며 날늘보닌다
 일죽이 련이(戀愛)를 일엇던 두사람남녀가 바로소 련의를 써다라 단란홀가
 정에 춘몽(春夢)에 취하여 금슬종고지락(琴瑟鍾之樂)이 여칠여밀 홀여지는동
 안에 어나듯 공유음닉에 여름이지니고 금풍이삼삼(颯颯)하고 락엽(落葉)이
 만정(滿庭)홀 만추절기에 이르렀더라
 리괴장의 하늘과 부처에게 빌고말아든마음이 헛되지안이하여 경조는 수습월
 전부터 음서의 뇌음을스러하고 초와갓치 신늘건만 질기게되얏더라 임의
 한번경험홀일이 잇는몸이라 처음에는 슈티홀을 심중에 삼씩놀니엿스나 한편
 으로는 질거온마음이 한이업다 지금까지도 아모리 남편이 이몸을 사랑홀지
 라도 숨어잇는죄악을 가진몸이라 항상 나의 지위가 위티홀을 근심하던바이라
 이제 어린아히라도 나을것갓흐면 이아히는 진실노 뇌외간의 거물못이라 일
 거를지니 두사람의육연(肉緣)은 도더히 싣키어려울지오 가량뇌몸의 비밀이
 낮하날지라도 이어린아히와 한가지로 죄를 누웃치고 부도를 작히여가면아
 모리 전일죄과가 이슬지라도 지금을보아 남편의용셔를 밧을이라고 스사로
 밧는마음이 싱기여 그후에는 뇌죄를 자복하여도 남편이 오히려 불상히알날도
 잇스리라하더라

일일은 남편과 조용히 방에안젼슬씩에 티중으로잇는 말을홀의 정옥조의 질거
 위하는괴식은 얼골에 낮하나며 경조는 그 남편의 질거홀을보고 더욱기거워흐다
 정옥조는 경조를향하여
 『나는 전연히 그련줄을몰나스니 그러면 지금몇달이나 되었단말이오 부인씩
 서는 아마 짐작이 게시겟구려』
 정옥조는 항상 그안히에게 향하여 말홀씩에 극히 존경을하는지라 경조는 처
 음에싱각하되 남편이 뇌게향하여 쓰는말이 필연나를 쇼원(疎遠)이 싱각하여
 홀인가하여 근심하더니 하로는 조용홀들을다쳐

『여보시오 령감씩서는 일상 나다려 말씀하실때에 너모 존디를항시니 무슨 일인지 모르게슴니다만은 너싱각갓히셔는 도리혀셔항게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셔허항게항시면 너외간이라고 엇지항겟슴닛가』

데이십일회

경조의항는말에 디항야 정옥조는 허우스며

『안이 그것은 부인이 아즉모로고 항는말슴이오 너가 부인에게디히셔 존경
항는것은 결단코 셔허항여셔 그리항는것도안이오 흥정을안이항노라고 그
리항는것도안이라 이것이 즉 나의주의(主義)오 디테나는 동양풍속으로 남
존녀비(男尊女卑)라항는말을 반디항는사름인고로 디위(地位)의 등급(等級)
을 싸라셔는 피차의남자스이라도 높고나진구별이 잇스려니와 사나희와너
편네사이에는 련품라고나기는 다갓치갓거늘 그곳에엇지 사나희는높고너
즈는낮다항는 리치가 잇겟소 그러나 오날々 이세상너즈의 처디를 감안이
볼것갓흐면 거의남즈에게 놀녀셔 고기도들지못항는 모양이오 너외간으로
말항여도 사나희는 제마옴티로 함부로 거동을항되 그안히되는 사름으로항
야는 덕절(貞節)을 지히는것이 일반풍속이되어 사나희는 의례히 그리홀줄
로알며 너즈도 또한의례히 그압박(壓迫)을 받을줄로아니 그리항고야 엇지
너즈의 디위를 보존항며 디위가 잇는나라너즈라 항겟는나항는싱각으로너

즈교풍회(女子矯風會)라항고 스업을 시작항여 진력항다가 중도에 불우의
스일을 당항여 중지항였섯지오만은 그일을 항코자항는때는 데일너몸부터
항항는게 상척이라항는 마음으로 부인씩 디히셔항는말로 자연존경항는것이
닛가 부인씩셔는 셔허항다말슴항시나 나는그말을 곳치지못항겟소 부인씩
셔는 나를 남편이라고 존경항시닛가 나도부인을 엇지안이 존경항겟소 존
경치안이항고 스랑항고의정은 고상홀 이정이라 할수업는것이원다 그리홀
싸름인고로 부인씩셔도 그럴줄아시기를바라오』

항고 흐르느드시 리문을 피는말에 경조는 억지로 다도지도안이항고 드를만
항고 안저잇슬뿐이러라
경조는 남편이 몇달이나 되였는나 못는말을 디답안이치못항야 얼골을 조금
붓그리며

『네글세몇달인지자셔히는 알수업셔도아... 아마셔너너덧달 되였나보아요』
『야 그러항면속히의원을불너다보고 보디홀약을 써야항겟구려 그러면어셔
장이씨도아시게히야항지안소 더구나이번이 초산인디 그것게예사로이잇
셔는 못씀니다

경조는 초산이라항는말에 가삼이 싹결니며 말업시 고기를숙이고 얼골에는
청식을 썬헛더라

정육조는 조곰도 경주의 괴석은 의심치안이고 깃거운맛으로
 『과연그러하면 이런경사가 다시어디 또잇겟소 이후로부터는 우리두사람이
 더욱이 행복을받을터이니 이도또흔 정당한사람에게는 지공무사한신 황련
 이 복을 수히주심인가호오 니가맞는바는 이정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동정이
 라든지 모단일이 다바른곳으로 좃차오는것인고로 마음이 발은지못할바가
 잇스면 이정과 자비와 동정을 도저히 취하지못하는법이라 그런사됨으로
 부인파닉가 오날이와갓치 가정의행복을 누리는것은 바른사됨과 바른사람
 이 서로모혀서 잇는고로 그칙이에서 스사로 정이소사나는것이오그려 만일
 그두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마음에거짓이 잇슬것갓호면 이와갓치 단란한
 가정이서립되기 어려울것이오 가량한번 성립이된다하더리도 영구히그복을
 누리지못하는 법이원다』
 향며 도々이 설명하는소리가 모다 자과의목적할바 리상(理想)을 말한다

『그리하고 아히를 교육하는티도 나는정으로 인도하는니보다 리치로 인도
 할싱각이오 만일 아히를 낫커든 이주의(主義)로 교육을 시키려호오 그러
 나 저러나 우리두사람스이에셔 나는아히는 단정코 단정할아히가싱길터이
 니 이런조흔데가 어디잇소 아모도록 몸을조심하여서 억지로호지는 못할일
 이지만은 아모도록은 사나회조식을 나아셔 정가의후스를 잇게하여주면 조

선에티하여셔도 우리가 면목이잇고 더욱이 우리집안은 티々로조곰도 부정
 한말을 남에게들지안이하든 집안인디 이서로 나호려하는아히는 더구나 결
 백흔놈일터이니 이러흔경스가 다시또 어디잇단말씀이오』

데이십이회

경주는스스로 슈티됨을 깃거하며 남편의 깃거함을보미 두가지로 깃거운마음
 이 비할터업스나 마음가온디 비밀을 감추어둔몸이라 깃거운마음이 날제마다
 근심도한가지로 붓춃차이러난다 더욱이 남편의 설명하는말을 드른후에는오
 히려근심이 더욱심하여 호을로 고요히안저잇슬씨에 속으로싱각호되 남편이
 깃거워함은 이몸이거짓이업는 정당한녀라하여 질거워하시거늘 만일니가
 죄잇는게집으로 그복중에서 나온자식으로 아실지경이면 깃거워하시든마음이
 업서지고 귀염을받고 질길어린아히도 니죄하나로하여 아모것도모르는철모
 로논 어린아히가 비참흔운명에 빠질터이니 이일을 장차엇지호리오 니몸은
 아모러흔지경에 일을지라도 철모로는 어린아히하나는 사랑하여주시면 조흔
 연만은 엇지하여 이몸은불행이 이세상에 나왔다가 티중이면 반다시 이러흔
 근심을호게되니 신세한탄은 지금 식로이하여도 쓸터업스나 식로히 출싱하는
 아히는 어미의죄로하여는 조곰도 거리셀일이 업스리라호였더니 남편의말씀
 을 들건디 부모가 죄악이잇스면 그철속을 받아나온조식서지 루를입는다호시

니 비록사나회자식이 난다하드리도 조상의덕을 잊지못할터이니 그아히는 평
 심을그늘속에서 세월을보이지안이하면 다른도리가업스리다 니몸은용서하
 시지 안이하신다하여도 철마나의조식이야 용서치안이사리오 그러나 남편의
 성품은정보다도 리치를중히아시는량반이라 정을두어주시는것도 될경정당
 할다 생각하시니 사름에게별이오 부정당하게 생각하시니 사름에게는 비록전
 일에 두엇던정이라도 홀연이 링답하여지실터이니 이어린것으로하여 나는남
 편에게 죄를조복하지못할는지... 그러나 죄를조복할후가안이면 평심마음이
 평안할터가 업겟스니 세상에 정이라하는것은 하필 도리상으로만 나오는것이
 안이언만은 죄악이 잇던사름이라하여도 일거일동이 모다죄가안이오 악인이
 라도 착훈마음 날씨가잇느니 죄잇는사름이라고 인정을두지 안이하다는것은
 니모심하시지... 죄가잇는 사름일스록 인정을두어주면 그고마온 마음은이
 로다 말하지못하고 감사하눈물로 날을보내겟거늘 남편의성품은 죄라하면어
 디지지던지 용서하는마음이업서 나의괴출이라도 사랑하는정보다 도리상으로
 만하시려하니 니모 성품도 과하시지... 안이 니가왜 이런지각업는 소리를하
 야는고 니몸이 결박하얏던들이근심더근심이 당초에잇슬리가 만무하거늘이
 더러운몸을가지고 도로혀 나에게친절하고 결박하신남편을 조공치라도 원망
 하는 생각을먹으면 더구나그른사름이라 모다 조과의실척으로 인연하여 구한

죄여늘 누를한하여 누를원망하리오 하로라도 일즉이조복하고 남편이 용서하
 야유마하는말을 드른후에 다시는 근심걱정업는몸으로 남편을되섯스면 원이
 업스련만은 가슴속에는 비밀호스정을 감초고잇는몸이라 바람만부러도 걱정
 이오 비만와도 근심일뿐안이라 항상 양심(良心)의 가척(苛責)을 면치못하고
 경환업는세월을 보느니 이신세를 잊지하나 오늘날도 초산이라고 크게념려를하
 시고 정당히 말을하실씨에 그러흔체하고
 『네』 디답할씨에 니가슴속이여... 번연히 거짓말인줄알면서 또 거짓말을하
 니 점々 거짓말만 늘뿐안이라 초산도안인디 초산인테하고 잇섯스니 이는 죄상
 첨죄라 언의날이던지 이죄를조복 하는날까지는 죄사짐만 무거워갈뿐이지 조
 공이라도 가뉘여와질날은 업슬터이니 언의씨에 남편의용서를 잊어가지고 씨
 닳훈마음으로 세월을보내보리오 잊지하면조흔가 졸연히조복하여도 남편의
 그성품에 리혼이나 될것갓하면 니몸은들져어나와 부친은잊지하며 어린조식의
 신세는 잊지하리오 조복을하려하여도 스정에걸니여 임의로못하는 이몸의근
 심을 황련후로나 어엽비습혀주실는지 하느님씨셔나 죄만은사름이라도 조복
 하고 회과하면 다시구원하여 주시건만은
 하며 길게한숨지으며
 아이고 니팔조야 티중마다 잊지하여 이근심을 늦치못하나

데이심삼회

리경주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가로도라와 부친을 뵈오니 리기장은 반
가이마즈며

『오너왔느냐 요스이 슈십일동안은 나도 한번도 못하고 너도 한번도 안이오
기에 대단이 궁금하얏더니 정말 반갑다 너의령감도 평안하시지』

『네!』

『그러나 네얼굴이 전만 못하얏스니 건일에는 엇의가 불평하냐』

『안이요 별로 압호지도 안이히요』

하며 스방을 도라보며 사람이 들을가 조심하는 모양으로

『쇼곰신기가 이상스러워서 실상은 그일로 아버지께 의론으로 온길이야요』

리기장은 눈쌀을 찌푸리며

『그리어디가 불평하다가는 말이냐 그리 병조리대로 온심이나 그동안에 의원
은더러보왔겠지』

『안이요 의원도 별로 보지 안이하구요 조섭초로 집에온것도 안이야요』

『그럼 무슨병이란말이나 엇지하는말이나 슈상하구나』

경주는 붓그림을 의의지못하다가 잔신이 입을열어

『그런게안이야요 요! 서너달째 경... 경도가 보이지 안이히요』

리기장은 눈을동구렷케쓰며

『무엇이야 석달째 경도를 안이보았서』

『네! 그리고 몸도노! 세숫지가 못히요 아마정녕 그건가보아요』

리기장은 희블즈승하여 무릎을너여밀고 나안즈며

『응 그러면 네가 아히를빌것이로구나 그러홀터이지 너가 그만콕축원을하엿
는데 부처님이 소원성취하여주시지 안이하실리가잇나 하느님 고평습니다

부처님 고평습니다 이런경스가 어디또잇슬가 너는 정말우리집안에 부덩어

리로구나』

하며 한업시조와하는모양에 경주는도로혀 속으로는 근심이 일건만은 억지로
진정하고

『그런디 집의령감은 의원도보고 산파(産婆)도되고 첫지 아버지께가서 의론
하라 하시기에 지금왔서요』

『응 그럼념려마라 티중인줄 확실아알면 의원볼것도업다 오날이라도 히산구
원할말은 너가하나 구히보너주마 다년히산에 경력잇는 사람이닛가 티중

에 몸조심하는것도 그사름의말티로하면 조곰도 히롭지안이홀터이니 공연
이 의원볼것도업다 엇덧든지 이런경스는업다 인제는 너의집이 반석갓치

편안할것이다 너도아예 아못것도 근심마라 나는 너의령감하고 금슬도탄말

을듯던지 너를충찬하는소리를 듯던지하면 너갓치 복잇는너편에는 업다고
 나는드를적마다 깃겁기는깃거오나 그것만가지고는 암만해도 마음에 부족
 할듯한더니 이번에이소식은 참하는님이 도으신것이니 아모도록 몸을조심
 하여서 든々흔아달하나만 나아다고 나는그것이 데일원이다』
 리경조가 그부친에게 티중된말씀도 고하려니와 참고참던 요스이에 근심을
 부친에게 원정이나하여 마음이나 좀시원케할가하얏더니 부친이 너외잔금슬
 조흔것을 질거위하여 조그의티중됨을 더욱조와하는모양을 목전에보미깃
 거위하는 부친의마음을 공연히다시 비창케할싱각에 참아입을 열지못하고
 마음터로 울기도하여 위로도 밧으려하엿던 마음이 스스로업서지고 이제는
 무슨일이던지 혼조가슴속에만 너어둘지오 너한몸으로 소리를먹음고 울니라
 결심하얏더라 다시경조는 괴식을런연히하여
 『네! 아버지말씀터로 하겠습니다』
 리경장은 경조의등을 어루만지며
 『이이경조야 정말로 몸을조심하여라 억지로할일은 안이지만은 아모도록 아
 달을나아다고 나도주야로 아달낫기를 축원할터이니 너도심축하여라 첫아
 달을나오면 너의령감이 오작조와하겟지 그런터너의령감도 너티중이란말을
 듯고 조와하엿겟지』

『네! 티단이조와하고 아이고정말나는.....』
 하며 눈물을먹음는다
 『오! 이이너도 눈물이나오도록 조흐나 나도조와서 눈물이난다 이말을김
 승지너외분이 드르시면 오작조와하시겟지 정말사름이라는것은 오리살것이
 다오리살면 이런조흔경사를 다보는구나 너의어머니는 일죽도라가서 이런
 조흔경사도 아지못하는구나 이즐거운내마음을 좀논아주고심흔들 이싱과
 저성이 현겨하여 흘슈잇나』
 하며 슈건으로 눈물을써스며
 『이이이비가 어리석다고 흥보지마라 늙으면 다그려하니라』
 데이십스회

리경조는 조그의지은죄로하여 그결과는 조그한몸이 밧으리라 결심하엿는고
 로 몸에넘치는근심을 너마음에만 감초아두고 남에게는 알리지안이하리라 마
 음을 결단하엿스나 전일스직골집에서 티중으로 신세한단과눈물로 세월을보
 너던적에 비하면 마음에위로될일이 여러가지라 그러나그중에도 더욱남편의
 이정을 김히입는고로 너조그의데일근심되는 투그와원망되는고싱은 구하려하여
 도 하나도업고 도로혀 복득이결함을 겁할지경이라 가량 일후에 나의비밀스
 정이 탄로할지라도 그날서지는 이몸이분골쇄신하드리도 남편을진심으로밧드